
공무국외여행보고서

- 연수국가 : 일본 (도쿄 및 주변도시)
- 연수기간 : 2017. 2. 20. ~ 2. 24. (4박5일)

의회사무과

목 차

I. 개요	1
II. 연수일정	3
III. 연수국 현황	
1. 일본	4
IV. 주요 연수내용	
1. 도쿄도의회	13
2. 도쿄 린카이 광역 방재공원 ‘소나 에리어 도쿄’ ..	14
3. 야시오 미나미 특별양호노인홈	15
4. 요코하마 시민방재센터	16
5. 주요 역사·문화·자연유산 탐방	17
V. 의원별 정책제언 및 시사점	28
VI. 총평	38

I 개 요

1. 연수국가

- 일본(도쿄 및 주변도시)

2. 연수목적

- 경주5.8지진 이후 잦은 지진 및 인근 원전에 대한 군민들의 불안감에 대하여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에서는 어떻게 대응·대비하고 있는지 운영현황을 알아보고 우리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방안 제시
- 세계산악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더불어 향후 지속적인 관광사업 발전을 위하여, 일본 후지산 관광자원 사례, 하코네 국립공원 및 오다이바 벤치마킹 등을 통한 다양한 관광사업의 비교 견학을 통해 우리군 산악관광사업 추진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 제시
- 특히, 우리군 필수사업 추진에 있어 해외의 다양한 시책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사업의 성공적 발전 방향을 모색코자 함

3. 연수기간

- 2017. 2. 20. ~ 2. 24. (4박 5일)

4. 보고서작성자

- 의회사무과 행정8급 이항재

5. 연수대상

연번	직책	성명
1	의 장	한성을
2	부 의 장	권영호
3	의회운영위원장	박동구
4	행정경제위원장	최길영
5	건설복지위원장	김영철
6	원전특별위원장	박기선
7	의 원	이동철
8	의 원	조충제
9	의 원	김민식
10	의 원	정수진
11	의회사무과장	오세운
12	행정경제전문위원	장명기
13	건설복지전문위원	김갑식
14	의회운영전문위원	윤경일
15	주무관	최상국
16	주무관	이항재
17	주무관	이소라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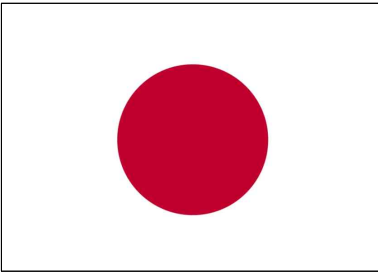
연수일정

일자	장소	업무수행내용
제1일 (2.20)	부 산 신주쿠 오다이바 도쿄	부산 김해국제공항 출발 일본 나리타 국제공항 도착 ▶현장견학 : 지역경제활성화 사례 벤치마킹 - 신주쿠 견학 오다이바 지역으로 이동 ▶현장시찰 : 야경을 이용한 문화상품화 사례 벤치마킹 - 레인보우 브릿지 ▶현장시찰 : 캐릭터 상품 우수관광화 사례 벤치마킹 - 오다이바 다이버시티 건담 실물상 견학
제2일 (2.21)	도쿄	▶공식방문 : 도쿄도의회 - 우리군 신청사 건립에 따른 도쿄도의회 현장시찰 및 건물활용사례 ▶현장시찰 : 전통시장 활성화 사례 벤치마킹 - 아사쿠사 센소지 및 나카미세도리 ▶공식방문 : 도쿄 린카이 광역 방재공원 ‘소나 에리어 도쿄’ - 지진 재난 대응·대비 관련 학습 벤치마킹 ▶현장시찰 : 역사·자연유산 관광사업화 사례 벤치마킹 - 황거
제3일 (2.22)	도쿄 닛코 도쿄	▶공식방문 : 야시오 미나미 특별양호노인홈 - 일본 노인복지시설 견학 및 관계자 간담회 ▶현장시찰 : 역사유적지·자연유산 관광사업화 사례 벤치마킹 - 동조궁 - 계곤 폭포
제4일 (2.23)	도쿄 하코네	▶현장시찰 : 산악관광자원 활용 우수사례 벤치마킹 - 후지산 일합목(1,291m) - 하코네 신사 ▶현장시찰 : 지역박물관 우수사례 벤치마킹 - 하코네 유리숯박물관
제5일 (2.24)	요코하마 나리타 부 산	▶현장시찰 :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사례 벤치마킹 - 요코하마 차이나타운 ▶현장시찰 : 랜드마크 및 관광지 우수활용 사례 벤치마킹 - 야마시타 공원 / 히카와마루(氷川丸)호 ▶공식방문 : 요코하마 시민방재센터 - 화재·지진 재난 실제 체험관 벤치마킹 공항으로 이동 및 나리타 국제공항 출발 부산 국제공항 도착

Ⅲ 연수국 현황

1 일본(JAPAN, 日本)

가. 개요



- 수도 : 도쿄(Tokyo, 東京)
- 위치 : 북위45도 33분에서 20도 25분 사이에 위치, 4개의 주요 섬으로 구성
- 인구 : 1억2,698만명(2016년 6월 기준)
- 면적 : 377,950km² (한반도의 약1.7배)
- 기후 : 4계절이 분명하며, 대체로 해양성 온대 기후
- 주요민족 : 대화족(大和族:야마토족 99%이상),기타(1%)
- 언어 : 일본어(Japanese)
- 종교 : 신도 52.3%, 불교 42.2%, 기독교 1.1%, 기타 4.3%

나. 정치

- 일본은 입법권이 국회(헌법41조)에, 행정권은 내각(65조)에, 사법권은 재판소(76조1항)에 속해 있는 삼권분립 체제이다. 이 중에서도 영국과 유사한 의원내각제를 취하여 삼권의 견제 및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1) 행정부

- 일반적으로 국가행정조직법에서 말하는 「국가 행정 기관」은 내각부, 부총청,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방위성, 국가공안위원회(경찰청) 등 1부 13개 성청이다. 일본의 내각총리 대신은 국회의원 가운데 선출되며 의결에 의해 정해진다. 국무대신은 총리가 직접 임명하며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가운데 선출된다. 만약 중의원에서 내각불신임을 결의할 경우, 총리가 총리직에서 물러나거나 이에 불복해 국민의 의견을 묻기 위해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다.

2) 입법부

- 국회는 양원제(중의원, 참의원)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신중한 심의를 통해 중의원의 지나친 움직임에 참의원이 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중의원과 더불어 참의원 또한 의결권을 가지나, 서로 상이한 의결을 도출한 경우에는 중의원의 의결이 우선된다. 중참 양원은 원칙상 대등한 지위에 있으나 실제로는 많은 경우 중의원의 우위가 인정되고 있다. 중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해산이 가능하다. 참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3년마다 의석의 절반이 바뀌는 체제이다.

3) 사법부

- 일본국 헌법 76조 1항에서 사법권은 최고재판소 및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하급재판소에 귀속되며, 2항에서는 특별재판소 설치를 금지해, 행정 기관이 최후 심리로 재판을 행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모든 사법권은 재판소에 귀속되며 여기서 말하는 「사법권」은 실질적인 의미의 사법 작용을 실시하는 권능, 행정 사건을

포함한 모든 재판을 실시하는 권한을 지칭한다. 즉, 사법권은 오직 최고재판소를 정점으로 하는 조직에게 귀속되며 이와 다른 재판소 (특별재판소)의 설치를 허가하지 않는다.

- 일본의 정당제는 55년 체제하에 오랫동안 자민당이 여당으로 계속 집권해 온 것이 특징이다. 55년 체제는 전형적인 일당 우위제의 상황이었다. 자민당의 일당 지배가 끝난 1993년 이후는 일본 공산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정권에 참가한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보면 온건한 다당제라고도 말할 수 있다. 또한 민주당과 자유당이 합병한 2003년 이후, 조건에서 보면 2대 정당제라고도 말할 수 있다.(2007년에는 중의원에서는 자민당이 제1당, 참의원에서는 민주당이 제1당을 차지한 상태가 2009년까지 계속 되었다)

다. 경제

- 아베노믹스(Abenomics)는 아베 신조 총리가 '잃어버린 20년' 탈출을 위해 내건 경제 정책으로, 「아베」와 「경제학(이코노믹스)」을 합친 신조어이다. 디플레이션과 엔고 탈출, 3% 이상의 명목 GDP 달성 등을 위한 경제 정책이며 아베 총리는 2015년 9월 자민당 총재에 재선된 뒤, 기자회견에서 "아베노믹스가 2단계로 들어갔다"며 아베노믹스의 「新 세 개의 화살」을 내세웠다.



자료원 : 닛케이 비즈니스

- 아베 정권은 2014년도에 290조 엔이었던 명목 GDP를 20% 증가시키기 위해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의 고용 확대와 지역 창생을 본격화해 생산성 혁명을 대담하게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또한 출산율을 1.8까지 회복시키기 위해 육아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유아 교육의 무상화, 결혼 및 불임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50년 후에도 인구 1억명을 유지하는 국가를 목표로 일할 의욕이 있는 노인의 취업 기회를 늘려 「일본 1억 총 활약 플랜」을 내세워 실천하려 하고 있다.

라. 문화

- 일본문화의 특징은 조몬[繩文]·야요이[彌生]시대의 토기, 하니와에서 볼 수 있는 고대미(古代美)를 비롯하여, 아스카[飛鳥]·하쿠호[白鳳]시대의 건축·조각 또는 <만요슈 萬葉集>에서 비롯된 와카[和歌], 하이쿠[俳句]와 같은 독특한 시가(詩歌)가 있다.
- 현대 작품의 인기 있는 또 다른 형태가 만화다. 만화는 일반적으로 각 책마다 새로운 내용을 담은 시리즈물이나, 사회 정보, 역사 또는 기타 논픽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때때로 만화영화로 제작되어 극장 및 텔레비전에서 인기리에 상영되기도 한다. 일본의 만화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 250년에 걸친 쇄국은 문화통합을 강화하는 기반이 되었고, 정부가 메이지 초기 이후 의도적으로 추진한 정책, 국어표준화, 신도(神道) 국교화, 덴노의 신격화 등이 동질성 높은 문화를 갖게 했다. 그러나 그 문화전통에도 다양성을 산출하는 조건이 존재했다. 4개의 주요 섬으로 이루어진 일본은 지역적인 다양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남쪽에서 들어온 민족집단, 북방에서 들어온 민족집단, 중국대륙에서 도래한 민족집단이 중층적으로 혼혈이 이루어졌는데, 각 계통의 문화요소가 민족의 형성과 함께 중층적인 일본문화의 기반이 되고 있다.

- 또한 봉건제 전개와 바쿠한[幕藩] 체제의 정비에 의해 지방문화가 각지에서 발달했다. 사농공상의 신분계층적인 부분문화가 각지에서 발달하여 현대 일본문화의 기초가 되고 있다. 왕실을 중심으로 한 문화전통도 계층적 부분문화라 할 수 있다. 또한 일찍부터 해외로부터 문화요소의 유입·전파가 있었다. 4세기 이전에는 농업·철, 7세기까지는 한자·불교·유교·도교 및 도시계획·정치행정제도가 유입되었고, 16세기에는 그리스도교·총기·서양문물이 유입되었다.
-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미국화도 그 계보를 잇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외 문화요소의 적극적인 채용경향을 이유로 일본문화를 모방문화·잡종문화로 보는 설도 대두한다.
- 일본에서는 전통적인 것에서부터 국제적인 종목에 이르기까지 널리 스포츠가 보급되어 있다. 축구, 전통무술, 겨울스포츠, 야구, 수상 스포츠등이 특히 대중화되어 있다. 외국에 잘 알려진 또 다른 전통 일본 스포츠로는 스모가 있다. 면이나 비단으로 만든 두껍고 무거운 살바(마와시)만을 두른 거구의 두선수가 서로 쓰러뜨리거나 동아줄을 둘러친 원형의 씨름판 밖으로 밀어내는 경기다. 경기 시간은 보통 1분 미만으로 매우 짧으며, 눈감짝할 새에 끝나기도 한다. 모든 경기는 정화의 표시로 씨름판에 한줌의 소금을 뿌리는 의식으로 시작된다. 스모 선수들은 열광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10대 중반에 시작하여 수년간 훈련한다.
- 일본에서는 야구와 축구가 특히 인기 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유명 선수들로 구성된 프로축구팀에 대한 일본 축구팬들의 자부심은 대단하다. 프로축구는 1992년 출발과 동시에 성공적인 J리그를 이루게 된다. 또 다른 열렬한 팬들을 가지고 있는 스포츠가 야구다. 전국 고교 야구대회는 매년 봄과 여름에 2회 열린다.

마. 최근 사회 동향 및 이슈

○ 동일본 대지진

- 2011년 3월 11일 14시 46분 일본 동북지방 태평양 연안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매그니튜드 9.0을 기록하며 일본 관측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남아있다. 특히 지진 발생 직후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규모의 쓰나미가 동북 지방은 물론 관동 지방에 이르기까지 태평양 연안에 막대한 피해를 안겨주었다. 또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도쿄 전력 관할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방사능의 심각한 유출 사태로 이어졌다.
-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 규모는 사망자 15,866명, 행방 불명자 2,946명(2012년 6월, 내각부 발표)로 약 2만 명에 가까운 인명이 희생됐으며 피해 지역에서는 도쿄 전력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영향도 포함해 약 34만 명 이상이 피난 생활 및 가설 주택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추정 피해 금액은 약 16조 9,000억 엔에 달한다.
- 일본 정부는 주요 피해 지역의 부흥과 산업 재개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지만 해외 경제 침체 등과 시기가 겹치면서 좀처럼 지진 발생 이전의 경제 수준으로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도 동북 지방 연안부의 복구 및 부흥 그리고 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능 오염과 피난 생활 중인 주민들의 귀환, 피해자의 생활 보장 및 고용, 건강 피해 대책, 앞으로 다가올 자연 재해의 대비 등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 구마모토지진

- 2016년 4월 14일 21시 26분, 규슈지역 구마모토현, 오이타현, 두 현에서 리히터 규모 6.5(잠정치), 진도 7의 대지진이 발생했다. 일본에서 진도7이 관측 된 것은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이후 4번째로 규슈 지방에서 진도7을 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4월 16일 구마모토현에서 14일의 규모를 초과하는 7.3의 지진이 발생, 이것이 본진인 것으로 밝혀졌다.

- 이번 지진으로 사망자 49명, 중·경상자를 포함해 1,665명(2016년 6월 15일 내각부 발표)으로 약 1,700여명이 희생되고, 피해 지역 주민들은 가설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정 피해 금액은 최대 4.6조엔에 달한다. 이 지진으로 구마모토현의 상징인 구마모토성 돌담이 크게 무너지고 낙석이 도로에 산란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무너진 망루는 국가의 중요 문화재로, 복구에 몇 년 걸릴지 모르는 것이 현실이며, 수리 비용은 수십억 엔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 일본 정부는 피해 지자체의 재해 복구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율을 올릴 수 있도록 격심재해지정을 각의결정했다. 추후 인프라 복구와 함께 가설 주택의 정비 등 이재민 생활 재건에 임할 예정이다. 또한 2016년도 보정 예산안에도 구마모토 지진 복구 예비비를 창설하는 등 경제 기반의 조기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수 천억 엔이 될 전망이다.

○ 소비세 인상 연기

- 아베 정부는 앞서 여야 합의로 2014년 4월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인상한 바 있다. 이후 8%에서 10%로 추가로 인상하는 시기를 2015년 10월로 잡았다가 2017년 4월로 1차 연기했다. 그러나 2016년 6월에 구마모토 지진과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등의 이유로 소비세 인상을 또 다시 연기할 것임을 공식 발표했다.
- 이에 따라 2016년 11월 18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2차 소비세 인상을 연기하는 세제 개정 관련법이 가결돼, 2019년 10월부터 소비세는 현행 8%에서 10%로 변경되게 된다. 다만 2차 소비세 인상 이후에도 술을 제외한 식료품 소비세는 현행 8%로 유지되게 된다.
- 소비세 인상이 미뤄지면서 경제가 급격히 위축될 우려는 사라졌으나 막대한 재정 적자 비율을 기록하고 있는 일본 정부로서는 시급한 과제인 재정 건전화에 미뤄짐에 따라, 일본 국채 시장의 타격이 예상된다. 또한 국제 금융센터는 소비세율 인상 보류에 따른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2017년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최대 1.3%에 그칠 것이라 전망했다.

○ 마이넘버 제도 도입

- 일본 정부는 '행정의 효율화', '국민의 편리성 향상', '공평 공정한 사회실현'을 위해 마이넘버 제도 도입을 시작했다. 마이넘버는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개념으로 국민 개개인의 12자리 번호로 2015년 10월부터 외국인도 포함 주민표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마이넘버를 통지 받았다. 마이넘버를 통지 받은 후에 시구정촌에 신청하면 신분증과 각종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마이넘버 카드가 교부된다.
- 마이넘버 카드에 기록되는 것은 성명, 주소, 마이넘버 등이며 소득 등 개인정보는 기록되지 않는다. 2016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사회보장, 세금, 재해대책 등 행정절차 시 마이넘버가 필수적으로 사용되게 됐으며, 2017년 1월부터는 마이넘버포탈에서 개인 정보의 교환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2020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 일본은 다가오는 2020년 도쿄 하계 올림픽·패럴림픽 개최를 통해 막대한 경제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모노레일 설치 및 도내 인프라, 올림픽 관련 시설 건설 등이 계획돼 있는 상황에서 이를 2020년까지 실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력이 필요하다. 인프라 정비에 따른 고용 촉진은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현재 일본은 소비세 인상 등으로 소비가 침체돼 있는 상황이나 올림픽 특수와 같은 올림픽 관련 상품의 소비 활성화와, 외국인 관광객의 인바운드 소비 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뿐만 아니라,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과 원전 사고의 영향으로 국제적으로 불안한 이미지가 있으나 도쿄 올림픽을 성공시킴으로써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일본은 안심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해외 관광객의 증가가 전망되며 일본 전체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된다.

<※자료출처: www.kotra.or.kr>

사. 방문도시 현황

○ 도쿄(Tokyo, 東京)

- 명 칭 : 도쿄도(東京都)
 - 특 징 : 일본의 수도, 사법·입법·행정·경제의 중심
 - 면 적 : 2,188.67km² (서울의 약3.6배)
 - 인 구 : 13,294,039명 (2014년 1월 기준)
 - 지 역 : 23개 구(區), 26개 시(市), 5개 정(町), 8개 촌(村)으로 구성
- ※ 총리관저, 국회의사당, 관청, 재판소 등의 정부기관과 사법기관 및 각종 경제단체 중 다수가 치요다구에 소재하고 있음.
- 도쿄도의 경제 위상

□ 일본 대기업을의 중심 도쿄

- 다양한 기업의 중심지로서 새로운 기업을 유치, 도쿄 경제를 견인
 - 자본금 10억 엔 이상의 대기업 2,666개 기업이 소재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 전체의 약 45%에 해당
 - 국제 비즈니스 거점으로서 일본에 소재한 외국기업중 약 75%에 해당하는 2,300개 이상의 외국기업이 도쿄에 집중되어 있음.
 - Fortune Global 500위 기업 기준으로 본사 수로는 세계 최고 수준

□ 충실한 교통 인프라

- 충실한 교통 인프라가 활발한 도시 활동을 뒷받침
 - 도쿄에는 15개 지하철 노선과 JR(Japan Railroads) 및 사철(私鐵) 각선의 철도망이 매우 조밀하게 뻗어 있어 도쿄 내 이동이 용이함
 - 특히 도심의 경우, 어떤 위치에서도 도보 10분 이내에 가장 가까운 지하철과 기차역에 갈 수 있음.

□ '모노즈쿠리(ものづくり)'의 도쿄

- 세계가 주목하는 높은 기술력으로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음.
 - 오타구, 스미다구, 아다치구, 카츠시카구 등 도쿄 내에는 소위 '모노즈쿠리(혼신의 힘을 쏟아 최고의 물건을 만든다)'를 지켜오고 있는 공장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음.
 - 그 중 오타구에는 약 4,000개의 공장이 있어 '모노즈쿠리' 달인들이 모인 마을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음.
 - 특히 항공기나 로켓, 인공위성의 부품을 만드는 금속 가공 전문의 기타지마시보리 제작소, 뇌 수술에서 사용하는 현미경의 세계 시장 점유율 60% 를 차지하고 있는 미타카 광학기기(光器) 등 원천기술을 보유한 세계적인 중소기업이 많이 있음.

IV 주요 연수내용

1. 도쿄도 의회

○ 방문 목적 : 의회사무국 전환에 대비한 해외 지방자치 현황 조사와 신청사 개청에 대비한 타국의 의회건물 비교 시찰

○ 주요 내용

- 도의회는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18세 이상의 일본 국민으로, 도내에 이어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들은 도의회 의원 선거자격(선거권)이 있으며, 선거권을 가진 25세 이상의 사람은 도의회 의원 출마자격(피선거권)이 있음.
- 도쿄도는 42선거구가 정해져 있으며, 의원 임기는 4년임.
- 현재 의원 정수는 127명이며, 현원은 126명(여성의원 25명)
- 현재 의원은 2013년 6월 23일 선거에서 선출되어 동년7월 23일에 취임함.
- 제47대 의장은 2015년 10월 8일에 카와이 시게오(川井しげお) 의원 (나카노 구(中野區)), 제41대 부의장은 고이소 요시히코(小磯善彦) 의원 (마치다시(町田市) 선출)이 취임함.
- 상임위원회: 총무위원회(15), 재정위원회(14), 문교위원회(14), 도시정비위원회(14), 후생위원회(14), 경제·항만위원회(14), 환경·건설위원회(14), 공기업위원회(14), 경찰·소방위원회(14)
- 일본의 유명한 건축가 단게 겐조에 의해 중세 유럽풍의 양식으로 설계된 도쿄도청은 지상45층에 도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도쿄도청을 찾고 있음.
- 우리군 신청사도 옥상광장 등 신청사 내 화합의 동산을 조성계획 중에 있어 공공시설의 관광자원화 사례로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었음.

- 현장 방문하는 연수단을 위해 본회의장 및 회의실에 미리 한글로 된 안내판을 준비해놓는 세심한 배려가 인상깊었음.



2. 도쿄 린카이 광역 방재공원 '소나 에리어 도쿄'

- 방문목적 : 지진 등 재난 발생 후 대응·대비 관련 학습 및 체험
- 주요내용
 - 도쿄 린카이 광역방재공원은 수도권에서 대규모 지진 발생시, 국가와 지방공공단체 등의 긴급재해현지대책본부가 설치되어 공원 전체가 광역적 지령기능을 수행하는 장소임.
 - 소나 에리어 도쿄 재해방지 체험 학습시설은 지진 발생 후 72시간동안 생존능력을 키우는 체험 학습을 통해, 재해를 이미지 하는 힘과 그에 대처하는 능력을 배움으로써,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방재를 보다 가까이 느끼며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경주5.8지진 이후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관내 재난 관련 체험학습장이 제대로 구현되어 있는 곳이 없음. 우리군도 군민들이 평상시 재난 대비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점차 확충하여 재난에 대비하는 자세를 갖춰나갈 필요가 있음.



3. 야시오 미나미 특별양호노인홈

- 방문목적 : 일본의 노인복지시설 방문 및 시설 관련 간담회
- 주요내용
 - 시나가와구에서 8번째 요양원이며, 구 시나가와 구립 야시오 미나미 중학교 건물을 그대로 활용하여 내부를 전체 리노베이션하여 2011년 5월 오픈하였음.
 - 개인실: 41방
 - 다인실: 10방(거의 개별실과 다름없는 환경 조성으로 장기입소자임)
 - 일본 양호 보험제도에 따른 양호 필요정도 1급~5급정도인 분들이 계심 (심신에 현저히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 불가하고, 상시 양호사가 필요하며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계심)
 - 직원현황: 시설장, 부시설장, 생활상담원, 양호지원 전문담당, 양호사, 간호사, 관리영양사, 마사지사, 사무담당자 등

- 실시사업: 제1종 사회복지사업 4개소, 제2종 사회복지사업 22개소, 공익사업 2개소
- 다인실은 각 방문이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거의 개인실과 같은 환경으로 조성해 놓은 점이 인상적이었음.



4. 요코하마 시민방재센터

- 방문목적 : 화재·지진 재난을 실제 체험해 보고 향후 재난 발생시 정책 반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연구
- 주요내용
 - 요코하마 시민방재센터는 재난 시뮬레이션을 통해 화재·지진 등을 직접 체험해보고 실제 지진 등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체험 학습할 수 있는 시설임.
 - 관동대지진 때 발생했던 진도7 지진 체험 등을 통해 지진의 공포에 대하여 직접 느낄 수 있었으며,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재난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최근 잦아지는 지진에 대비하여 군민들이 지진을 상시 체험할 수 있는 학습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을 느끼고, 재난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철저한 방재 시스템에 대하여 고찰해야 할 것임.



5. 주요 역사·문화·자연유산 탐방

- 방문 목적 : 역사문화자연 유산의 보전 및 이를 활용한 관광 자원화 방안 모색
- 주요 내용

【 레인보우 브릿지 】

- 도쿄만을 가로질러 오다이바와 도쿄 시내를 연결하는 현수교이다. 정식 명칭은 도쿄항 연락교(東京港連絡橋)지만 정식명칭보다 애칭인 레인보우 브릿지가 더 유명하다. 길이는 570m이고 높이는 50m다. 1987년에 착공하여, 1993년 8월에 완공되었다. 상하 총 2층으로 자동차와 열차가 동시에 다닐 수 있으며, 레인보우라는 이름에 걸맞게 일주일에 일곱 번 조명이 바뀌는 아름다운 야경으로 유명하다.

- 다리를 받치고 있는 주탑은 흰색으로 칠해져 있으며, 오다이바에서 보이는 도쿄 중심부의 스카이라인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었다. 다리를 지지하는 강철선에는 램프를 달아 낮 동안 얻은 태양에너지로 밤이 되면 빨강, 초록, 하얀 빛깔로 조명을 비춘다.
- 우리군에서도 간절곶 및 명선교 등 아름다운 해안 야경을 연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레인보우 브릿지처럼 다리자체의 경관과 더불어 해안경관 및 주변건물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단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다이버시티 실물 크기 건담 모형 】

- 실제 설정과 동일한 크기(18m)의 건담 모형이 애니메이션 '기동전사 건담'의 탄생 30주년을 기념해 2009년부터 도쿄 오다이바에 설치되었다. 복합시설 다이버시티 도쿄 플라자 외부 광장에 설치된 실물 크기의 건담은 1979년 방영된 원작 애니메이션에 등장해 가장 많은 인기를 끌었던 주인공 기체 모형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 특징이다.
- 외형은 단순히 형태를 따라하는 것을 넘어 발목, 무릎, 팔꿈치, 관절 등을 섬세하게 재현하여 완성도를 높였고, 세부 파츠 등이 추가되어 볼거리를 더했다. 행사장에는 건담과 관련된 상영회, 음악회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어 건담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어주고 어린이들에게는 꿈을 키우게 하는 문화적 명소가 되었다.

- 건담 조형물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은 일본의 모노즈쿠리(혼신의 힘을 쏟아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는 뜻의 경제용어) 정신을 충실하게 보여준다. 화학, 금속, 물리 등 기초 이론부터 토목, 기계 등 응용학까지 조형물 곳곳에 일본의 제조업 장인들의 노하우가 들어있다.
- 우리군에서도 다양한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옹기마을을 지나는 고속도로, 철도, 군도에 옹기랜드마크를 설치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려한다. 이러한 옹기랜드마크를 제작할 때 단순한 조형물로 만들기보다 우리군의 우수한 옹기장인들의 노하우를 총투입하여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찾아가고 즐길 수 있는 랜드마크를 제작할 수 있도록 고심할 필요가 있다.



【 황거(皇居) 】

- 황거(皇居, 고쿄)는 400여년 전에 세워지고, 약 130년 전부터 일왕이 거주하는 왕궁이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치 중심지를 교토에서 도쿄로 옮기고 에도 성을 세우면서 지금의 황거가 조성됐다.
- 대부분의 지역은 일반인들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고, 정문에는 안경처럼 생긴 '메가네바시(眼鏡橋)'라는 이름이 붙은 돌다리가 있는데, 일제강점기였던 1924년 1월 5일 김지섭 의사가 황거의

이중교(二重橋, 니주바시)를 향해 폭탄 3개를 던졌으나, 폭탄의 불발로 거사가 실패하였던 다리이기도 하다. 그리고, 근처에는 이봉창 의사의 의거 장소인 사쿠라다몬도 있다.

- 주변경치가 좋고, 일왕이 거주하는 곳이라 관광지로 명성이 높지만, 독립운동이 벌어졌던 장소라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또다른 의미로 소중한 장소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담아 울산 최초의 만세 운동이었던 언양4·2만세운동을 더욱 뜻깊이 기려야 할 것이다.



【 동조궁 】

- 전국시대 일본을 통일하고 에도막부(江戸幕府) 시대를 연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사당(신사)이다. 자신이 죽은 뒤 닛코(日光)에 묻어 달라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유언에 따라 시즈오카(静岡)에서 이 곳으로 시신을 옮겨와 자그마한 신사를 만들고 시신을 안치 하였으나, 에도막부의 3대 장군이자 이에야스의 손자인 도쿠가와 이에미쓰가 조부를 기리기 위해 일본 전역에서 15,000명의 장인과 450만 명의 인력을 동원해 1643년에 다시 착공, 1년 5개월 만인 1636년에 전면적으로 개수하였다.
- 현재 신사 안에 있는 많은 전각들은 국보나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되었다.
- 우리군은 반구대암각화 및 천전리 각석을 비롯하여 수많은 역사 유적지를 보유하고 멋진 풍경을 자랑한다. 다만, 닛코 동조궁같은

스토리텔링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반구대암각화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박제상 유적지는 왜 소중한지에 대한 연구 및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 현재 언양읍성도 복원사업을 계속 진행중인데, 복원과 더불어 언양읍성 복원에 대한 스토리텔링 홍보도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계곤폭포(華嚴瀧) 】

- 계곤폭포는 도치기 현 닛코 시의 닛코 국립공원에 있는 폭포로 승려 쇼도가 발견하였다고 한다. 불교 경전 중 하나인 화엄경에서 연유해 화엄폭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는 하나, 닛코에는 아함폭포, 방등폭포, 반야폭포, 열반폭포도 있어 천태종의 오시팔교에서 따온 것으로도 보고 있다.
- 난타이 산(男體山)의 분화에 따라 생성된 거대호수 주젠지호(中禪寺湖)에서 흘러나온 물에 의해 형성되어 이후 다이야강(大谷川)으로 흐른다. 일본 3대 폭포 중 하나로, 높이는 97m이고, 위에서 직하하던 폭포가 중간에서 12개의 작은 폭포와 함께 어우러져 쏟아진다. 관광객을 배려해 폭포 주변에 폭포 아래까지 내려가는 엘리베이터가 있다.
- 미국의 그랜드캐년과 같이 커다란 절경이 주는 혜택은 무엇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군은 비록 계곤폭포나 주젠지 호수처럼 규모로 압도하는 거대폭포나 거대호수 등은 없지만, 영남알프스라는

훌륭한 자연유산이 있다. 잘 찾아보면 삼남면 폭포 등 멋진 풍경을 자랑하는 곳이 영남알프스 산 속에 많이 있다. 영남알프스라는 자연유산을 활용하여 세계산악영화제 개최와 더불어 향후 행복케이블카 사업을 통해 산악관광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여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아사쿠사 센소지 및 나카미세도리 】

- 센소지(淺草寺)는 일본 도쿄도 다이토구 아사쿠사에 있는 절이다. 도쿄에서 가장 큰 사찰이며, 628년 스미다 강에서 어부 형제가 던져놓은 그물에 걸린 관음상을 모시기 위해 사당을 지었고, 이후 승려 쇼카이가 645년에 절을 세운 것이 센소지의 유래로 알려져 있다. 관동대지진과 2차 세계 대전 당시 대부분 건물이 소실되었고 지금의 건물은 1950년대에 재건축한 것이다.
- 센소지 입구 가미나리몬에서부터 호조몬에 이르는 약 400m의 상점 거리 '나카미세도리'에는 전통과자 및 공예품 상점들이 에도시대부터 지금까지 깨끗하게 보존되어 내려오고 있다.
- 나카미세거리에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센소지와 더불어 아사쿠사를 대표하는 상징성, 아름다운 풍경, 깔끔한 상점거리, 다양하고 유명한 먹거리 등이 있다. 우리군의 전통시장인 영남알프스시장, 남창옹기종기시장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게하려면 울주군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부여하고 주변경관정리 및 편리한 교통, 깔끔한 시장골목, 다양한 먹거리 등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 후지산 일합목 】

- 후지산은 일본 시즈오카현 북동부와 야마나시현 남부에 걸쳐있는 일본을 상징하는 산으로 높이 3,776m, 분화구 지름 700m로 일본 최고봉이고, 후지 화산대의 주봉이며,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원뿔형의 성층화산이다. 저지에서 솟아있어서 화산체 그 자체가 높고 밑면은 지름이 35~40km에 달한다. 2013년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 영남알프스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군의 산악관광 개발을 위해 일본을 대표하는 후지산을 좀 더 가까이 보고 확인하려 하였으나, 날씨 사정으로 도로를 통제하여 원래계획했던 오합목까지 못가고 일합목에서 산을 바라만 봐야해서 아쉬움이 컸다.
- 후지산이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후지산 자체의 압도적인 풍경도 있지만, 후지산 등정 시 일합목, 이합목 등 요소요소 구분을 짓고 일정구간까지는 대형버스도 출입이 자유로울 정도로 편리한 교통시설을 갖추어놓았으며, 날씨가 흐릴때는 바로 통제를 하는 등 등산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잘 갖추어 놓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후지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기념이 될 만한 상품을 많이 갖추고, 후지산 자체도 상품화하여 후지산을 브랜드화 한 것도 세계적인 명소가 되는데 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 우리군도 영남알프스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하여 좀 더 편리한 교통시설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영남알프스라는 브랜드를 내걸 수 있을 만한 상품 및 관광코스를 개발한다면 세계적인 명소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하코네 신사 】

- 후지산 근처에 있는 하코네 신사는 아지노코 근처에 위치한 신사로 757년에 세워 하코네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오래된 신사만큼 신사 주변으로 오래된 삼나무 숲이 울창하게 둘러쌓여 있다.
- 후지산 및 아시호수와 더불어 하코네 주변 풍경을 멋지게 연출하는 하코네 신사를 보면 우리군에서도 산악관광과 연계하여 영남알프스에 있는 주요 사찰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하코네 유리숲 박물관 】

- 하코네 유리숲 박물관은 138번 국도 하코네우라카이도 상에 위치하고 있는 박물관으로, 유럽식 유리공예품들이 주변 풍경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준다.
- 박물관 내부는 중세유럽 귀족의 열광을 받았던 베네치안 글라스부터 현대작가의 참신한 작품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직수입한 유리제품 및 악세사리 등 5천종류 10만 작품을 준비하고 있고, 박물관 외부는 박물관 사이사이마다 유럽식 정원으로 꾸며놓아 박물관을 돌아다니며 이곳저곳 보아도 볼거리가 많았다.
- 중세유럽풍의 정원 및 장식품 등은 상당히 이색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며 앞서 보았던 산악관광과는 별개로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람객의 발길을 끌었다. 한국의 전통이 소중하지만, 관광객의 새로운 볼거리를 위하여 우리군도 이러한 이색적인 박물관에 대하여 생각해 볼 가치가 있을 것 같다.



【 요코하마 야마시타 공원 및 히카와마루호 】

- 야마시타 공원은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나카구에 있는 공원이다. 관동대지진 이후 피폐해진 일본경제를 살리기 위한 임해부흥사업의 일환으로 지진으로 파괴된 건물의 잔해인 기와조각과 자갈로 바다를 매립하여 조성한 일본 최초의 서양식 임해공원으로 1930년 3월 15일에 개원하였다. 공원 내에는 해외 교류를 기념하는 상징적인 조형물이 많고 또한 히카와마루(氷川丸)라는 호화 여객선이 정박하고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다. 히카와마루호는 1930년부터 30년 동안 시애틀 항로를 중심으로 태평양을 횡단했던 12,000톤의 호화여객선이다. 요코하마항 개항 100주년을 기념하여 야마시타 공원에 설치되었다.
- 우리군이 가장 신경쓰는 곳 중에 하나인 간절곶공원에는 관광객들의 볼거리 또는 다양한 기념사업으로 10여 개의 조형물이 설치되어있지만, 볼거리에만 너무 치중하다보니 조형물 구성이 산만하고, 정체성도 찾아보기 힘든 것도 몇 개 있다. 향후 간절곶 명소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면 부자연스러운 조형물은 정비를 하고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간절곶에 어울리는 상징성을 갖춘 조형물을 갖출 수 있도록 고심해 봐야 할 것이다.



【 요코하마 차이나타운 】

- 요코하마 차이나타운은 1859년 요코하마 시가 개항할 때 요코하마에 들어온 유럽의 상인들이 중국인 통역관을 데려오면서 형성되었으며, 이후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차이나타운이 되었다.
- 1937년에 중국과 일본 사이에 벌어진 전쟁으로 차이나타운도 잠시 경제가 침체되었으나, 전쟁이 끝난 뒤 다시 성장하여 1955년 대문이 지어지면서 차이나타운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았고 요코하마 중화가라고 불리게 되었다.
- 중국본토가 다양한 요리로 유명하듯이 요코하마 차이나타운에도 200개 이상의 여러 음식점들이 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차이나타운을 찾는 이유는 일본 내에서 중국 문화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먹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관광과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우리군도 멀리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으려면 상인 및 음식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야시오 미나미 특별양호노인홈 공식방문 및 간담회 :

박동구 의회운영위원장

○ 참석자 : 야시오 미나미 특별양호노인홈 복지담당 '오노 타카시'
울주군의회 의원 및 직원

○ 주요내용

- 원래 여기는 야시오 미나미 노인특별홈이라든지 노인그룹이 있는데, 이 홈을 담당하는 이 단지가 원래는 중학교 건물이었음. 1993년도에 만들어졌고,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은 1만5,0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있음.
- 교육시설은 처음 단지가 만들어졌을때는 중학교가 3개, 소학교가 4개, 유치원이 2개, 보육원 따로 4개 정도 있었음.
- 처음엔 젊은 세대 입주민들이 많이 들어왔었지만, 고령화시대에 들어서 점점 어린세대들이 많이 빠져나갔음. 그래서, 지금은 중학교 1개, 소학교 1개로 줄었으며, 같은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학교에 다니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9년을 다니는 시설 하나가 남아있음. 유치원도 1개로 줄었음. 보육원은 맞벌이 부부가 늘었기 때문에 4개 그대로 보유하고 있음.
- 여기 노인홈은 일반생활이 가능한 노인, 우리나라로 치면 실버타운 비슷하게 돈을 내고 생활하는 동과 치매환자 또는 풍환자 등이 있는 동 두 개의 동으로 나뉘져 있음.
- 여기는 일본 최초로 빈 건물을 이용한, 원래 실제 중학교였던 건물을 노인홈으로 바꾼 첫 번째 사례의 건물임.

1) 수용인원이 1만5천명이 된다고 했는데, 현재 입소자 수는? (조충제)

☞ 단지 전체 인구가 1만2천명 정도이고, 입소자는 100명 정도됨. 100명 중에는 계속 생활하시는 분도 있고, 짧은 기간 가족들이 잠시 위탁하는 경우들도 합해서 총 100명 정도 됨.

2) 입소자가 100명이면, 보육사 및 관리자는 몇 명인지? (조충제)

☞ 40명 정도임. 100명에 40명이니까 2.5대 1 비율이고, 파트 타임 (아르바이트) 개념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2.1대1 정도임.

3) 단지에 1만2천명이 거주하는데, 단지 면적은? (박동구)

☞ 20만평임. 단지라는게 노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단지가 아니고, 신도시처럼 단지가 만들어졌는데, 인구가 1만 5천명에서 1만 2천명으로 점점 줄어서 빈 건물이 생기게 되면서 그 빈 건물을 노인홈으로 변경한 첫 번째 사례임.

4) 국가에서 시설을 관리하는지, 자체적으로 하는지? (최길영)

☞ 일본은 양호가 필요한 등급이 1단계부터 7단계로 구분됨. 그리고, 일본에서는 사회제도에 따라서 나라에서 부담을 함. 실제로 입소자로 들어오는 노인 분들의 부담은 1~2%정도임. 여기 노인홈은 양호,보호가 필요한 3단계 이상의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노인시설임. 보통은 한사람이 한달에 내는 돈이 10만엔 정도이고, 그게 부족하신 분은 할인해 주는게 있음. 그다음에 나라에서는 1인당 입소자들에게 매달 1인당 20만엔 이렇게 지원해줌. 일본에 이런 시설에는 노인 한사람이 생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달에 35만엔 정도임. 그래서, 나라에서 부담하는게 25만엔, 노인이 부담하는게 10만엔 정도인데, 10만엔 중에서 사회보험제도에서 나오는게 3만엔, 노인이 7만엔이고, 다해서 노인이 부담하는 게 10만엔 정도됨.

5) 입소자가 시설에 계시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장례시설도 직접 다해주는지? (최길영)

☞ 장례하고 바로 연결되는 그런 시설은 아니고, 돌아가시면 병원으로 보냄.

6) 이 시설은 정부에서 하는건지? 지자체에서 하는건지? (조충제)

☞ 시나가와 구에서 하는 시설인데,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아님.

7) 여기에 100명이 현재 거주중인데, 평균 연령은? (박동구)

☞ 기본은 65세 이상이 일본의 사회적 보험에 들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기본연령은 65세부터 들어올 수 있음. 그러나, 몸이 아프거나 보호가 빨리 필요하신 분들은 특별히 그보다 어린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65세가 들어올 수 있는 연령임.

8)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권영호)

☞ 학교처럼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음. 입소자가 집에 계셨을 때처럼 살았던 가정에 맞는 생활환경으로 최대한 만들어 주고 있음. 집에 계셨을 때처럼 “아버지, 목욕하실래요?”하고 여쭙고 목욕하신다면 목욕하시고, 원하지 않으시면 안하는 개념으로 하고 있음.

○ 공식방문 소감

- 일본의 노인복지시설 방문을 통해 타국의 복지시설에 대해 알아볼 수 있어서 의미가 있었음. 기존 중학교 건물을 재단장해 노인양호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인상 깊었으며, 노인의 개인생활도 소중히 여겨 다인실을 개인실과 같이 꾸며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 점도 인상깊었음. 일본의 복지시설은 건강을 위해 인위적인 환경을 조성하기보다는 최대한 노인 분들이 원래 집에서 하던 생활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도와주는 형태를 지니고 있었음.

일본 도쿄도 지방자치 현황 및 의회 건물 시찰 :

권영호 부의장,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

- 일본 도의회도 우리나라와 같이 주민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어있다. 도쿄도는 42선거구가 정해져 있으며, 의원 임기는 4년이다. 현재 의원 정수는 127명이며, 현원은 126명(여성의원 25명)이고, 2013년 6월 23일 선거에서 선출되어 2013년 7월 23일에 취임하였다. 제47대 의장은 카와이 시게오 의원, 제41대 부의장은 고이소 요시히코 의원이 취임하였다. 현재 도쿄도의회는 9개 상임위원회가 있다.
- 2017년 올해 도의회 선거가 있어 선거운동 등 의원 일정상 간담회를 진행할 수 없어 아쉬웠다. 거리에 선거홍보 포스터가 많이 붙어 있어 지방선거 분위기를 쉽게 느낄 수 있었다.
- 일본을 방문하며 느낀 것은 좋은 정책이 있으면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밀어붙이는 힘이 좋다는 것이다. 진행하다 문제점이 생기면 기존의 정책에 보완책을 만들어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여, 기존 정책이 흔들리지 않고 계획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점은 배울 점이라고 생각한다.
- 도쿄도청 및 도쿄도의회 건물은 일본의 세계적인 건축가 단게 겐조에 의해 중세 유럽풍의 양식으로 지어졌다. 물론 도쿄도청 및 도쿄도의회 건물과 우리군 신청사 건물의 연면적 등의 규모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 어렵지만, 도쿄도청의 45층 전망대 및 기념품 판매점 등 내부 인테리어와 우리 연수단이 현장방문 했을 때 본회의장 및 회의실에 미리 한글 안내판을 준비해놓는 세심한 배려 등은 향후 우리군 신청사가 지어지고 난 후에도 신청사를 찾는 민원 및 관광객들을 위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진다.

해안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 검토 : 최길영 의원

- 도쿄 오다이바의 레인보우 브릿지는 도쿄만을 가로지르는 현수교로 길이는 570m, 높이 50m에 달한다. 상하 총 2층으로 자동차와 열차가 동시에 다닐 수 있는 복합식 현수교로서, 레인보우라는 이름에 걸맞게 일주일에 일곱 번 조명이 바뀌며 아름다운 야경으로 유명한 곳이다.
- 우리군 서생에는 진하리와 강양리를 잇는 인도교인 길이 145m, 너비 4.5m, 높이 17.5m의 명선교가 있다. 길이나 규모로 보서는 레인보우 브릿지와 명선교가 비교가 될 수 없지만, 바다를 풍경으로 하고 아름다운 야경을 연출하는 면에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명선교 경관조명의 내구연한(5년)이 도래함에 따라 경관조명을 교체하려는 중이고, 간절곶 또한 간절곶 명소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려 하고 있다. 해안경관은 건축물 자체의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주변경관과 얼마나 조화를 잘 이루는지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번 간절곶 명소화 사업 및 명선교 명품화 사업을 추진할 때는 주변경관 디자인과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진 및 재난 대응·대비를 위한 사전준비 : 박기선 의원

- 일본은 태풍·지진 등 각종 재난을 자주 겪다보니 그에 따른 대응·대비가 잘되어있다. 재난이 발생하기 전 대비부터 재난발생 시 대응책 및 재난 발생 후 생존대책까지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있는 느낌을 받았다.

- 우리가 방문했던 도쿄 린카이 광역방재공원은 평소에는 지진 후 생존법등을 체험하는 학습장소로 활용하고, 재난이 발생하면 바로 긴급재해현지대책본부가 설치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요코하마 시민방재센터는 관광객이 직접 재난현장을 체험함으로써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체험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 또한, 건물도 평소 안전을 중시하여 건물외부창문에 빨간색 ▼표시를 하여 지진 혹은 재난시 비상 대피를 위한 출입구(긴급 탈출 시 깨야하는 유리창 표시)를 안내하는 표시를 해놓고, 표시가 있는 유리문 아래에는 짐을 놓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야간에도 항상 비상구에 불을 켜놓아 밤에 재난이 일어나도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다. 에너지 절약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더 소중히 여기는 자세를 볼 수 있었다.

노인복지정책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사례 조사 :

이동철 의원, 김민식 의원

- 일본은 노인을 돕는 복지제도가 잘 마련되어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의 가족을 대신한 사회사업가나 간호사 등의 전문가가 가정에서 직접 전문적인 상담과 안내를 해주며 필요에 따라 복지서비스 및 공적보건의시설 등을 바로 제공받고 도움받을 수 있고, 야간이나 긴급 상담에도 대처가 가능하도록 항시 대기하고 있으며, 노인보건의시설이나 병원에 노인보호 및 지원센터가 병설되어 있다. 또한, 치매는 환자 및 가족들까지 정신적, 육체적인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이런 부분이 경제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치매에 걸린 분들을 위한 복지제도도 잘 마련되어 있다. 병원과 보건의시설에서는 상담센터 및 전문상담원이 직접 방문해 지도하는 등의 가족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돕고 있으며, 주간 보호시설이나 특별요양홈 등을 설치해 입욕과 식사, 일상훈련에 대해 서비스도 제공하고 수발자를 통한 가족교실 등이 열리고 있다.
- 우리가 방문한 미나미 야시오 노인특별홈도 양호보험제도에 따른 양호 필요정도 1급~5급 정도인 분들이 입소하는데, 개인의 사생활을 소중히 여겨 다인실도 개인실처럼 문을 따로 만들어 개인실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은 점과 건강회복을 위해 인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보다는 입소자가 원래 살던 환경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입소자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점이 인상깊었다.

- 일본도 복지예산을 많이 쓰지만, 예산을 안써도 되는 곳에는 쓰지 않는다. 그리고, 매년 잘못된 부분을 수정·보완하고 있다. 우리군도 점점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노인 분들이 더욱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꾸준히 연구하여야 하며, 이런 세심하고 작은 배려와 노력들이 모여서 모범복지군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전통시장 문화관광화를 통한 차별화 전략 : 조충제 의원

- 센소지 입구인 가미나리몬에서부터 호조몬에 이르는 약 400m 의 상점 거리인 나카미세도리에는 연중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기념품을 사가고 가게에서 먹을 것을 사간다. 우리군의 전통시장인 영남알프스시장이나 남창옹기종기시장 풍경과 일본의 나카미세도리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 나카미세도리에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이유는 일본을 대표하는 관광지 센소지 가미나리몬의 존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가미나리몬을 보고 나카미세도리를 둘러보면서 기념품 및 먹거리를 사가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을 수 밖에 없다. 우리군 전통시장은 관광지보다는 일반 상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관광지는 경치가 보고 싶으면 다시 들르지만, 상점은 필요한 것이 없으면 가지를 않는다. 그렇기에, 우리군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면 우리군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부여하는 것이 첫 번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나카미세도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깔끔한 상점거리, 아름다운 전통풍경 및 다양하고 유명한 먹을거리를 보유하고 있기에 관광객이 다시 찾아오고 싶어한다. 우리군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후장옥 정비사업을 하고 있으며, 상징적인 조형물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다.
- 특히, 언양알프스시장은 100년 전통의 유서깊은 전통시장이지만, 워낙 오래되다 보니 장옥형태 등 낙후된 모습에 도로 및 통로도 좁아 관광객들이 장을 보기에 많이 불편 했고, 언양시가지 교통망 개선사업(대로1-24호선 도로확장사업)을 위한 시장 이전 부지가 확보가 안되어 언양발전의 걸림돌로도 작용해 왔었다. 그러나 우리군의 노력으로 현재 시장이 있는 바로 뒤편에 상인들이 점포를 이전할 수 있는 대체 부지가 마련되어 전통상권도 유지하고, 미관도 새로 정비할 수 있고, 언양시가지 교통망 개선사업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새로 이전할 언양알프스시장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고민할 단계이다. 노후화된 시설을 현대화한다고 하여 과거의 전통적인 형태를 완전히 없애는 것도 또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하나의 대안으로 나카미세도리를 참고한다면 새로 이전하는 언양알프스시장에 울산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부여하고, 깔끔한 상점거리와 아름다운 주변경관 및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한다면 언양알프스시장은 전국의 많은 관광객이 다시 찾아오고 싶어하는 전통문화시장형 관광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산악관광자원 연계 활성화를 위한 사례조사 : 정수진 의원

- 후지산은 일본 시즈오카현 북동부와 야마나시현 남부에 걸쳐 있는 일본을 대표하는 산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은 산맥을 이루어 여러 봉이 솟아있는 모양인데, 일본의 후지산은 멀리서 봤을 때 주변 평지에 높이 3,776m의 분화구 하나만 솟아올라 있어 독특한 형새를 이루고 있었다.
- 후지산으로 가는 길은 스바루라인을 지나는데, 도로도 잘 만들어져 있었고, 후지산멜로디포인트라고 도로에 흠이 파져있어서 길을 저속으로 주행하면 바퀴가 지나가면서 후지산의 노래 멜로디가 흘러나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 연수단이 갔을때는 날씨가 좋지않아 도로통제로 1합목까지 밖에 못올라갔다. 이 점도 배울만한 점인데, 산행이 위험한 정도에 따라 산행 분기점을 두어 미리 도로통제를 하고 안내를 하는 점은 우리군의 영남알프스 산악관광에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진다.
- 이어서 후지산 근처에 있는 하코네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하코네 신사를 들렀다. 신사 주변으로 삼나무 숲이 뽀뽀하게 둘러싸여 있어 멋진 정취를 볼 수 있었다. 우리군도 영남알프스 명산들을 끼고 통도사, 석남사, 운문사, 표충사 4대 사찰이 있는데, 영남알프스 관광과 더불어 사찰 관광도 연계하여 이뤄질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만들어 봐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 그리고, 하코네 신사 멀지않은 곳에 하코네 유리쉴 박물관이 있었다. 하코네 유리쉴 박물관은 박물관 내부는 중세유럽풍의 베네치안 글라스부터 현대작가의 작품 등 수천종류의 유리공예품을 볼 수 있고, 박물관 외부는 유럽식 유리공예품들이 주변 풍경과 어우러져 마치 유럽에 와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어 후지산과 연계하여 봤을 때 상당히 이색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여 색다른 재미를 선사했다. 산에 와서 산악관련 볼거리만 보면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색다른 볼거리를 보는 것도 또다른 재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군은 영남알프스 관련 사업이 모두 산악에 관련되는 것에 집중되고 있는데, 하코네 유리숲 박물관처럼 산에 와서 또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관광객의 재미를 늘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VI 총평

- 연수단은 2017년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4박 5일간 일본 도쿄 및 주변도시의 환경·문화·행정·복지·안전대책 등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을 하고 관련 시설 등을 방문하여, 선진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우리군 정책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인지 연구하였음.
- 이번 연수는 울주군의회 의원들이 우리와 유사한 환경에서 행정·문화·복지·관광·안전대책 등 여러 분야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일본의 다양한 사례들을 직접 체험하고 비교·검토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특히, 일본은 지진이 잦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재난체험학습장 및 대피학습시설이 잘되어있었고, 지역마다 타워를 세워 지진에 문제없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지역의 명소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었음.
- 연수 일정상 날씨가 좋지 않아 기존 계획된 일정 등이 변경·취소되고, 오다이바 내 시설도 점점기간이라 원래 일정을 소화할 수 없었던 점은 아쉬우나, 전체 연수목적은 달성하는데 문제점은 없었다고 판단됨.

- 이번 연수를 통해 일본의 제도·정책·시민의식 등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느낌으로써 새로이 깨우치는 것도 많았고, 세계로 향하는 우리 군정에 이를 적극 반영하여 군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더 넓어진 안목으로 우리군의 주요 행정을 견제·감시하고 다양한 정책개발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됨.